

中 한국 수산물 불법 싹쓸이 ... 연 피해 1조 넘어

동·서·남해 안 가리고 조업 ... 수산자원 손실 최대 65만t

연근해 어업생산량 사상최저 ... 수협중앙회, 中대사관에 항의문

중국 어선들의 불법 고기잡이가 지속되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로 중국의 ‘보복’ 대응이 잇따르면서 중국 불법조업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데, 사드 불뚱이 될 경우 자칫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된 한중 어업협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사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해 27일까지 2개월간 중국 불법 어선의 거점해역인 서해 한·중 접점조치수역에서 잡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는 25건이었다.

접점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불과 두 달이긴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량이나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건은 조업 허가를 아예 받지 않았다.

불법 어선들이 기습을 부리는 건 서해뿐만이 아니다.

연근해 어획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남해에서는 중국어선들이 대만 쪽에서 해류를 타고 올라오는 물고기를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잡아들이고 있다. 동해에서는 북한 수역에 진출을 치고 있다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동·서·남해를 가리지 않고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들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이 최소 10만t에서 최대 65만t에 달한다.

중국은 이렇게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한

국에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처음으로 12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이 수산물을 수입하는 대상국 가운데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수입산의 25% 이상이 중국산이다.

오징어, 낙지, 조기, 꽃게 등 국내에서 어획량이 부족하거나 국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어종이 대부분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항의문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t 선이 붕괴하며 44년 만에 사상 최저치인 92만3000t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로 인한 갈등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했으며, 해경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중국어선에서 화재가 발

생, 선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한국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에 의해 침몰한 데 이어 연말에는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발포하며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비화했다.

그나마 지난해 말 불법어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중어업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해결의 물결이 트이는 듯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얘기가 달라지게 됐다. 당장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양국 간 공동순시 등 향후 일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보류 통보를 해오거나 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이기도 하고, 양국의 정치·외교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美 금리인상설·中 사드 영향

현재 탄핵 결정 주목

대내외 불확실성 변동 장세

지난해 7월 정부가 한반도 사드배치를 공표한 이후 중국의 압박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드부지 제공 발표 이후 중국당국의 제재는 예견되었지만 지난 주 롯데그룹과 국방부가 성추골프장 부지 교환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한 이후 중국의 움직임은 매우 강경하게 나타났다. 중국당국은 부지제공 발표 초기에는 중국여행사에 한국관광상품에서 롯데면세점 및 호텔방문을 제한하고 한국드라마 방영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부지교환계약 체결 이후 중국 국가여유국이 이달 15일부터 여행사에서 한국관광객 송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당장 중국관광객 급감으로 면세점 화장품 등 중국매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며 3일에만 아모레퍼시픽(-12.6%), LG생활건강(-8.2%), 호텔신라(-13.1%), 오스템임플란트(-7.0%) 등 관련기업이 큰폭의 주가하락을 보였다.

중국당국이 양국 국민들에게 전파성이 강하고 산업에는 영향력이 낮은 소비재와 한류를 중심으로 제재를 강화하면서 반사드징서를 확산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류관련 문화콘텐츠와 소비재에 제한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산업과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산업전반으로 제재조치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장품, 관광, 한류콘텐츠에 대한 제재의 강도 및 향후 완화될 수 있는 일정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이들 업종에는 당분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3월 재닛 옐런의장의 연설에서 14~15일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인상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으며 연설 이후 금융시장도 인상가능성을 반영하며 미국증시가 주말 조정을 보였다. 하지만 3월 금리인상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리인상은 유동성축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미국 경기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좀더 부각되고 있어 시장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9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한법재판소 대통령 탄핵결정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 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확대, 영국 하원을 통과한 브렉시트의 본격화, 헌법재판소 탄핵안 결정 등 시장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만기일 청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만기일 물량부담이 예상된다.

이번주 9~10일 또는 13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에는 질서 있는 탄핵으로 정국혼란 진정화 정책기대감으로 상승 전환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대통령의 탄핵결정은 탄핵이 기각되고 750포인트에서 박스권저점을 형성한 이후 8월부터 상승전환해 2008년 2000선까지 상승했다(중국수출 확대영향). 이미 시장과 국민정서는 현재의 인용판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선반영하고 있어 탄핵안 인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며 국론분열 양상과 혼란이 가중된다면 시장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주에도 코스피 2100포인트 안착을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주말 하락폭이 컸던 중국관련주는 트레이딩관점의 단기적 접근으로 제한하고 영향이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IT 및 소비재업종과 실적개선과 함께 환율, 중국변수로부터 자유로운 은행, 증권업종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중국관련 약세속에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도로 박스권 하단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 실적개선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과 코스닥ETF의 저점 분할매수는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시장대응은 기관순매수 전환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복지점장〉



광주시-농협광주본부

농업발전 도모 농정간담회

농협광주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3일 광주시 상무지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농정협력 강화와 지역농업발전 도모를 위한 농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시장, 박태선 광주지역본부장, 김귀남 영업본부장, 14개 광주지역 조합장, 시청 일자리경제국장, 생명농업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농업정책으로 친환경 쌀생산단지 인증 확대, 시설하우스 연작예방사업 강화, 작목별 친환경 생산모델 구축, 광주세계김치축제 및 김장대전 활성화,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방역 강화를 제시했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협에 협조를 요청했다.

농협광주본부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농외소득원 개발, 꽃 생활화 캠페인 전개, 농민 조합원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광주광역시와 신규 협력사업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과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운동 활성화를 제시했다.

윤장현 시장은 “광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인 소득활동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한 농정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이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광주광역시와 농정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농협광주본부 임직원들이 지역 농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농지은행 평가 전남지역 1위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지사장 조영호)는 5일 “2016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에서 지역본부 전남 지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실적과 정책목표달성, 사후관리 등을 종합평가하는데 그 중 특히 사업추진 실적에서 만점을 맞는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영호 지사장은 “2017년도에 농지은행 사업비로 152억을 확보하여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성장기 농업인과 귀농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농업·농촌 정착에 도움

을 주고,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은행사업은 생애주기별로 관심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위기단계, 은퇴단계로 나누어 정책수요에 입각한 맞춤형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심단계에서는 농지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농지거래시장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가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fbo.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창업단계에서는 농지매입비촉사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확보된 농지를 귀농·귀촌을 꿈꾸는 2030세대에게 임대하여 성공적인 초기 정착과 적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장단계에서는 전업농 중심의 사업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와 장기 임대차사업을 실시한다.

위기단계에서는 영농 중 자연재해나 부채의 급증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매 가 1억1천만

동구 수기동
상가 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 차 완비

▶매가 1억4천
(웅 5천)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걸림)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장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음식점,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37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톨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광산구 송월동 (상가건물)
토 226평, 건 86평
광주 송정역 / 광산구청 1분
2차선 도로 접 / 코너 자리
▶감정가 14억5천 → 최저가 14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득차려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062-527-7600

010-7384-7800

062-527-7600